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오후3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내 평생에 가는 길(470)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469)	다 같 이
조용한기도	Prayer	다 같 이
찬 송	Hymn 13	다 같 이
기 도	Prayer	박종갑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사무엘상 16:1-13	인 도 자
설 교	사람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이진우 목사
찬양과봉헌	Hymn 507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 남관희 성도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1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2부 예배	**오후 3시**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회사역	**이진우 목사(Rev. Jin W. Lee)**
행정사역	**박종갑 장로**
양육사역	
찬양사역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만약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우리 자신이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6년 10월 8일 제10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하나님은 교만하고 무례해진 사울을 대신해 새로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갔고 이새로 하여금 아들들을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 첫 눈에 엘리압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울 자이구나. 아버지 이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보자고 했을 때 자신의 장남인 엘리압을 제일 먼저 선 보이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외모의 준수함 그리고 맏아들로서의 충실함. 그는 항상 아버지의 신임을 독차지했습니다. 사무엘과 이새의 생각에 그리고 엘리압 스스로도 생각하길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의 재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사무엘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장남 엘리압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 이새의 선택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데 사람을 잘못 봅니까?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 흠이나 티를 적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지만, 사람의 영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아비나답입니다. 아비나답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마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 이새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아이를 양육하고, 그 사람됨을 면밀히 관찰해온 아비가 추천하는 사람 일곱 아들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안목이 얼마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성경의 은유입니다. 아비도 자식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안목이요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꾸미는데 힘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나에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가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선택을 받으며 사는 것 삶을 사는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선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받으면 무엇 합니까? 정작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런 신앙생활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하나 드려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쉬울 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쉬울 까요? 언뜻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어려운 일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에 갖추어야 할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김새도 잘생겨야 하고, 돈도 좀 많아야 하고, 가방 끈도 길어야 하고, 성격도 좀 밝아야 하고, 적당히 아부도 아첨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참 어려워 보이지만 참 단순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100번 아니 1000번의 실수도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결코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자식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을 변하지 아니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끝내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늘 어긋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만을 보면 사람의 선택과 관심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의 선택과 관심은 실패로 끝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반면에 당시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결국 옳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 삶 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 지역전도와 교회를 알리기 위해 우편으로 주보를 발송 중에 있습니다. 주보발송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교회는 헌금자 명단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재정에 있어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누구든지 궁금하시면 행정사역 장로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적립된 선교/구제 헌금은 $889.00)
4. 지역사회 봉사와 선교를 위해 컴퓨터 교실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 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130.00	
감사헌금:	$90.00	
주일헌금:	$1.00	
특별헌금:	$10.00	**합 계: $231.00**

금주의 중보기도

- 자유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여 이민교회에 새로운 영적 파도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 좋은 예배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 믿음과 열정으로 개척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을 복주사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